



## 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활성화 주력

### 기술개발 및 복지 향상에 힘쓸 터

김봉길 / (주)삼각기계 대표이사

**한** 국포장기계협회가 선정한 제3회 포장기계대상 경영 관리 부문에 (주)삼각기계가 선정됐다.

삼각기계 김봉길 사장은 “먼저 뜻깊은 상을 주신 포장기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수상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 생각한다”며 “수상의 영광을 전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각기계는 매년 매출의 약 8%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분임활동제안제도 운영으로 품질을 향상, 무분규경영 및 장애인 고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1975년 국내 포장기계 분야의 황무지와 같은 시절 김봉길 사장은 삼각기계제작소를 설립하게 되면서 포장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27년 전 식품가공기계에 종사하면서 식품가공기계 후처리 공정인 포장분야와 병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포장기계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삼각기계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설립된 삼각기계는 1986년 하남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1990년 제 2공장 준공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에 1992년 기술선진화 업체로 선정됐으며 1998년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어 다음해인 1999년에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2001년에는 유망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포장기계 생산업체로서 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삼각기계는 장기근속자가 많아 전통깊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것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볼때 장기근속자들은 삼각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나'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길 바란다는 김봉길 사장의 남다른 경영방침이 삼각기계의 성장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원칙을 지키자', '신뢰를 만들자', '수익성을 높이자' 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이에 전문화 및 분업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에 피하고 있으며 지역컨소시엄 및 산학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영역 안에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하고 내가 포장기계 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일조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직도 제조업이라 하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떠올리기 쉽다. 이는 취급 제품의 특성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직원 복지에 대한 투자가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사장은 직원의 입장에서 최상의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으로 장애인 사기 진작 및 경영 합리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 등 각종 교육비와 써클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내에 당구장과 탁구장, 휴게실이 있는 복지관을 건립중에 있다.

이런 김 사장은 열악한 국내 포장기계 산업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렇다고 현실에 만족하고 지금의 자리에 안주한다는 것은 아니다.

김 사장은 항상 삼각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 없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상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코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김 사장은 판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1997년에는 우수자본채와 관련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난립해 있는 포장 문제를 꼬집으면서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항상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삼각기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직원의 복지 향상을 통해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 욕구에 부합되는 제품 생산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업,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으로 성장되길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